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장효은** · 김춘경***

이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간의 종단적 관계를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자료의 0세부터 2세까지와 4세부터 6세까지의 자료인 1차 ~ 3차 년도와 5차 ~ 7차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이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아기 놀이방해 및 단절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아기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영아 심리사회발달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이 유아기 놀이방해 및 단절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영아 심리사회발달의 초기값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Key Words):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

어머니 양육스트레스(Maternal Parenting Stress)

영아 심리사회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of Infant)

I. 서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축소,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교수, 교신저자(chisenatiamo@naver.com)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해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작 연령은 어려워지고 있다(이은경, 2014). 또한 OECD는 유치원 취원율을 90%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고, 한국 유아들의 취원율도 전체 90.7%로 유아 10명중 9명 이상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김미소, 2016).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던 유아의 사회화 역할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대표적 사회 환경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인간은 유아기에 이미 일차적 관계였던 가족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간다는 것으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환경으로 또래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유아가 맺는 다수의 관계들은 흔히 상대방이 지식과 자원,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상대방에 의해 통제되고 좌우될 수 있지만 유아가 맺는 또래관계는 관계를 맺는 양쪽의 힘이 동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상호작용과 구별된다(문무경, 2005). 유아는 또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Rubin, Bukowski, & Parker, 1998),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실험하고자 하는 탐구능력을 고양시키게 되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발달을 위해 기초가 되는 감수성을 개발시키게 된다(양윤정, 201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놀이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량화, 전일우, 2010), 유아기의 효과적인 또래상호작용의 최고 수단은 ‘놀이’이다(Howes & Leslie, 1998).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일상생활이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학습하게 하는 수단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매체이다(Coplan & Arbeau, 2009). 성인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조절하듯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조절한다(김재화, 2016).

긍정적 놀이상호작용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는 애정과 친밀감을 잘 표현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김순진, 2013). 놀이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지성애, 정재은, 2011; Mathieson & Banerjee, 2010).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비단 사회정서적인 부분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Coolahan과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 행동을 보인 유아들은 아동기에 교실 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유아기 때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을 보인 아동들보다 호기심, 인내심,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았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았다. 이렇듯 유아기의 놀이를 통해 형성되는 또래상호작용은 한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래놀이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한 Fantuzzo, LeBoeuf, Rouse, 그리고 Chen(2012)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 시 보이는 행동들을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구분하여 보는 이유는 유아가 또래상호작용 속에서 발달시켜야 하는

행동과 감소시켜야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여 긍정적인 행동은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놀이방해 및 단절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및 단절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종속변인으로 두고자 한다.

또래상호작용은 단일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환경, 사회 환경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각도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동일 발달단계인 유아기의 개인변인과 가정-사회 환경 변인이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선행하는 영아기의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영아기의 중요성은 발달 원리 중 ‘누적성’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영아기에 발달과제를 정상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기의 긍정적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Hooper & Umansky, 2004). 영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기 때문에(Brownell & Kopp, 2007), OECD(2001)에서는 ‘Starting strong’ 이라는 개념 하에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도 생애 초기 발달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유아를 위한 조기 교육과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오정윤, 2016). 영유아기의 조기개입 및 사전예방은 미래의 사회문제 및 위험을 줄이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uncan & Magnusi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인 부모변인과 영아의 개인변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 변인 중 아버지 변인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강조되어왔다(Bronte-Tinkew, Carrano, Horowitz & Kinukawa, 2008; Roggman, Boyce, Cook, Christiansen & Jones 2004). 지금까지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김정주, 박형신, 2017; 황선실, 황희숙, 2014). 이인길(1992)의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대상자의 23%가 유아기라고 대답 하였고, 오직 2%만이 태아기와 영아기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생애 어떤 발달단계보다도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단계(김순구, 2002)인 영아기의 아버지 양육참여가 더욱 절실하다(옥정, 2012).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아버지 양육참여와 또래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송은혜, 2008;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Lewis와 Lamb(2003)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고,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여주는 등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 같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석원, 이대균, 2014). 주정혜(2012)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2015)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이 5점 척도 중 2010년에는 3.1점, 2015년에는 3.5점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2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조숙인, 2010). 사실상 아이의 모든 행동에 부모의 손이 가야할 시기인 영아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아버지가 영아를 잘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돌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강란혜, 2001). 하지만 어머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아를 돌보는 일은 매순간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영아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시기로 밝혀졌다(서은미, 2016; Abidin, 1990). 또한 자녀의 전반적 발달과정에 있어 부부가 함께 보여주는 양육환경이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박일새, 남은영, 2015; 최미숙, 송순옥, 2014; Rinaldi & Howe, 2012)는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 양육참여 변인과 함께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반항,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Jackson, Brooks-Gunn, Huang, & Glassman, 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체벌이나 학대, 소리 지르기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방식을 취하게 되어(오수진, 2017) 이를 보고자란 자녀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인 부정적 행동을 모방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슷하게 행동 할 수 있다(박연주, 2001; 정송희, 정효진, 2016). 특히 영아기에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의 개입으로 어머니의 표정을 모방하기 때문에(김유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관계를 살펴본 서석원 등(201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또래상호작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 환경 변인과 더불어 영아기 개인변인인 영아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출생 후 0개월 ~ 24개월 시기의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모든 발달영역에서 가장 급속한 발달이 일어나는 제 1성장급등기이다(곽금주, 2014). 영아기의 발달 내용은 간단하고 쉬운 듯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 획득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쉽지만 영아기의

발달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는 발달의 민감기(sensitive periods) 혹은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 불리는데, 특히 영아기는 뇌 발달의 민감기로(Meaney, 2010; Sameroff, 2010)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나 효율성이 수정될 수 있는 가소성(plasticity)이 높은 시기이다(Marshall, Reeb, Fox, Nelson, & Zeanah, 2008). 인간의 정서조절 능력발달에 대한 뇌의 민감기는 만 1세 시기가 해당되며, 4세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사회적 기술과 언어발달에 대한 뇌의 민감기는 1세에서 2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4세까지 중간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2; 장선아, 2014, 재인용). 즉, 인간의 사회, 정서 발달의 뇌의 민감기는 상당부분 영아기에 해당된다.

사회적 발달 수준이 높은 영아일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ell, 1986; NICHD, 2001). 임영심과 박은주, 문수백(2012)은 의사소통 발달 수준에 따라 친사회성과 또래간의 적응이 달라진다고 보았고, Qi와 Kaiser(2003)은 유전을 제외한 환경에 의한 발달 지연 발생 시 영아기의 조기개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영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긍정적, 부정적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원인 영아기 발달을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는 영아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1990년대 초부터 대규모 종단연구를 통해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anssen, et al., 2011; Lipkens, Hayes, & Hayes, 1993; Zeanah, Boris, & Larrieu, 1997). 2004년 한국아동학회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아동발달 연구 중 영아기 발달에 관한 연구는 4%에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영아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0년대 초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신애선, 2017; 양승희, 2016; 임명희, 박윤조, 2011;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5; 허혜경, 김민정, 2012), 아직 양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며, 대부분 횡단적 연구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돼 연구 결과에 대한 정당성에 한계(전현정, 정혜원, 201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으로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에서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밝힌 변수들이 종단적 발달궤적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또래상호작용 과정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 이루어지며, 영, 유아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이므로 영아기부터 유아기에 걸친 종단적 자료를 통해 관련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개인 내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 변화궤적 간에 종단적 매개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 매개로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1-1.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1-2.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놀이방해 및 단절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1.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놀이상호작용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2.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 놀이방해 및 단절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 아동패널자료(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중 1차 년도(2008년)부터 3차 년도(2010년)까지와 5차 년도(2012년)부터 7차 년도(2014년)까지의 6개년도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자료이며, 5차 년도부터 7차 년도까지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의 자료에 해당된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1,018명이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2014년)	N(%)
가구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58(15.5)
		경인권	300(29.5)
		대전/충청/강원권	136(13.4)
		대구/경북권	112(11.0)
		부산/울산/경남권	159(15.6)

		광주/전라권	153(15.0)
자녀특성	성별	남아	520(51.1)
		여아	498(48.9)
	월령	72 - 73개월	127(12.5)
		74 - 75개월	422(41.5)
		76 - 77개월	381(37.4)
78 - 79개월		88(8.6)	
부모특성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157(15.4)
		36세 - 40세	524(51.5)
		41세 - 45세	280(27.5)
		45세 이상	57(5.6)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361(35.5)
		36세 - 40세	523(51.4)
		41세 - 45세	125(12.3)
		45세 이상	9(0.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6(15.3)
		전문대 졸업	214(21.0)
		대학교 졸업	504(49.5)
		대학원 졸업	144(14.1)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2(9.0)	
	전문대 졸업	339(33.3)	
	대학교 졸업	515(50.6)	
	대학원 졸업	72(7.1)	

2. 측정도구

1) 유아 또래상호작용 척도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1998)가 개발하고, 최혜영,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 수정한 질문지(김은설 등, 2012)를 사용하였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동안 학급 내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아동행동의 관찰을 기초로 교사가 4단계로 평정하는 교사 보고형 척도이며, 총 30문항이다. 본 척도는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나타내는 놀이상호작용 9문항과 상호작용 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보이는 놀이방해 13문항,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놀이 단절 8문항으로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 한다’ 등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방해는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등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단절은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등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놀이상호작용 하위요인을 포함하였고,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하위요인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별 행동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Cronbach’s α 는 5차 년도 .866, 6차 년도 .880 7차 년도 .89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놀이 상호작용 .705(5차), .725(6차), .789(7차)로 나타났고, 놀이 방해 .758(5차), .790(6차), .825(7차)로 나타났으며, 놀이 단절 .777(5차), .823(6차), .897(7차)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홍성례(1995)의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을 측정하는 문항 중 ‘부모 역할’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조사 대상의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번안,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자녀양육참여 척도는 자녀의 전반적 삶에 대해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 한다’,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어머니 보고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는 1차 년도 .766, 2차 년도 .802, 3차 년도 .801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원도구의 세 가지 하위변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

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는 1차 년도 .851, 2차 년도 .855, 3차 년도 .855로 나타났다.

4) 영아 심리사회발달 척도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II(ASQ II)를 허계형, Squires, 이소영, 이준식(2006)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K-ASQ(Korean-Age & Stages Questionnaire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 발달을 평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의 5개 영역으로 영역별로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발달을 의미하는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을 제외한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3개의 하위영역을 묶어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을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의 예로 의사소통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표현합니까?(12개월)’ 등, 문제해결은 ‘아이가 투명한 병(음료수 병, 우유 병 등) 안에 있는 작은 빵 조각이나 콩 크기의 과자를 건드리거나 잡으려고 합니까?(12개월)’ 등, 개인-사회성은 ‘당신이 아이에게 웃어주거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가 가까이 있는 당신을 보고 웃습니까?(4개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는 1차 년도 .784, 2차 년도 .764, 3차 년도 .75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패널조사 자료의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단절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단계를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왜도와 첨도의 값을 통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의 기본적인 변화선 모형을 파악하고자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의 합치도를 비교한 후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심리사회발달,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단절 각각의 최종 변화선 모형을 결정하였으며, 앞서 검증된 선형모형 혹은 무변화 모형을 토대로 잠

재성장매개모형을 적용하고 종단적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4. 연구모형

1) 잠재성장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모형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1을 통해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과 영아 심리사회발달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기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및 단절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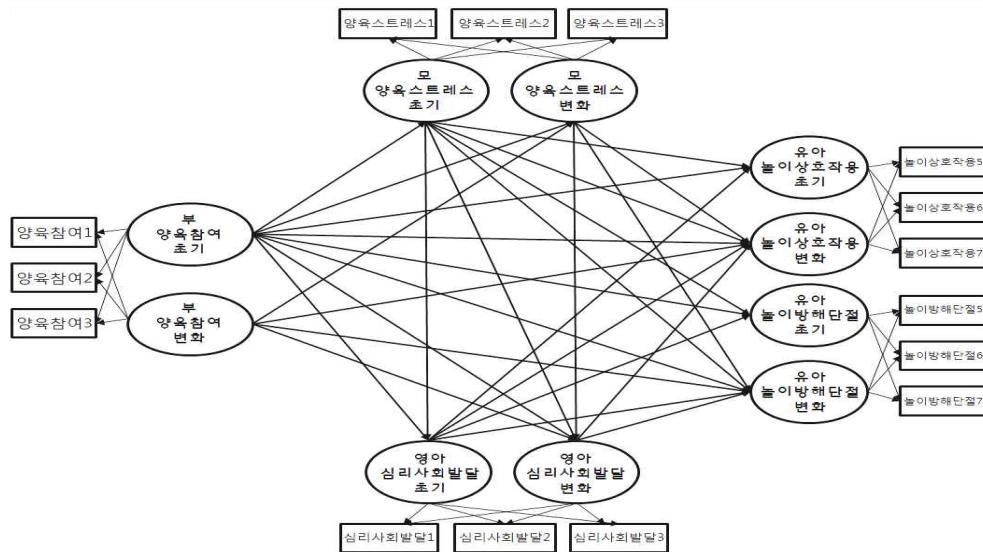


그림 1. 통계적 모델

III. 연구결과

1. 요인 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양상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 유아기 놀이상호

작용과 놀이방해 및 단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년도에 따른 평균값을 구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해 보면, 아버지 양육참여는 3차 년도에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도 3차 년도에 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심리사회발달도 3차 년도에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 놀이상호작용은 7차 년도에 3.22로 가장 높았고, 놀이 방해 및 단절은 5차 년도에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 하였을 때,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서 주요 변인들이 단변량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line, 2011).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아버지 양육참여	1차	3.57	0.79	1.00	5.00	-.28	-.36
	2차	3.70	.086	1.00	5.00	-.42	-.54
	3차	3.80	0.83	1.25	5.00	-.41	-.4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차	2.65	0.63	1.00	4.70	.20	.11
	2차	2.69	0.64	1.00	5.00	.09	.15
	3차	2.76	0.60	1.00	4.82	.12	.30
영아 심리사회발달	1차	8.59	1.47	1.67	10.00	-1.29	1.47
	2차	8.67	1.11	3.33	10.00	-1.07	1.21
	3차	9.15	0.92	5.00	10.00	-1.33	1.89
유아 놀이상호작용	5차	2.90	0.48	1.00	4.00	-.50	.30
	6차	3.06	0.43	1.33	4.00	-.53	.41
	7차	3.22	0.45	1.22	4.00	-.73	.86
유아 놀이 방해 및 단절	5차	2.19	0.50	1.15	4.00	.96	1.37
	6차	2.01	0.46	1.10	3.90	.79	.72
	7차	1.92	0.48	1.05	4.00	1.04	1.56

2. 변인별 분석모형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 영아 심리사회발달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이 측정시점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

을 갖는지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N=1,018)

		x^2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아버지 양육참여	무변화	155.740	.91	.88	.19	3.68***		.43	
	선형변화	.668	1.00	1.00	.00	3.57***	.11***	.53***	.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무변화	86.399	.95	.93	.14	2.69***		.24***	
	선형변화	1.81	.99	.99	.03	2.64***	.06***	.32***	.06***
영아 심리사회 발달	무변화	558.66	.45	.26	.36	8.81***		.56***	
	선형변화	55.73	.93	.93	.10	8.54***	.27***	1.83***	.38***
유아 놀이상호 작용	무변화	199.11	.73	.64	.22	2.76***		.16***	
	선형변화	.06	1.00	1.00	.00	2.90***	.13***	.16***	.02***
유아 놀이 방해 및 단절	무변화	243.94	.77	.69	.24	2.03***		.13***	
	선형변화	17.09	.95	.98	.08	2.18***	-.14***	.20***	-.03***

* $p < .05$, ** $p < .01$, *** $p < .001$

세 시점에서 모든 변인들이 선형변화에 적용시킨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심리사회발달과 놀이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놀이방해 및 단절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주요변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요인별 분석결과에서 모든 변인이 변화율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가지 변인에 대

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종단적 구조모형 적합도

Fit Index	χ^2	df	p	TLI	CFI	RMSEA
종단적 구조모형	533.751	69	.00	.92	.92	.08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2, CFI는 .92, RMSEA는 .0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최종모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변인의 발달궤적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 R.
부 양육참여 초기	→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23	-.29	.02	-8.06***
부 양육참여 초기	→ 영아 심리사회 초기	.47	.25	.07	6.83***
부 양육참여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초기	.05	.12	.02	2.67*
부 양육참여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초기	-.08	-.14	.02	-3.68***
부 양육참여 초기	→ 영아 심리사회 변화	-.11	-.12	.03	-2.95*
부 양육참여 변화	→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	-.14	-.19	.03	-4.51***
부 양육참여 변화	→ 영아 심리사회 변화	.19	.10	.05	3.88***
부 양육참여 변화	→ 유아 놀이상호작용 변화	.06	.13	.02	2.40*
부 양육참여 변화	→ 유아 놀이방해-단절 변화	-.07	-.14	.02	-2.63**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영아 심리사회 초기	-.48	-.20	.08	-5.45***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초기	-.17	-.27	.02	-6.00***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초기	.25	.32	.03	8.18***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변화	.05	.21	.01	3.33***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변화	-.07	-.25	.01	-3.68***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	→ 영아 심리사회 변화	-.56	-.22	.09	-6.24***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	→ 유아 놀이상호작용 변화	-.09	-.14	.04	-2.32*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	→	유아 놀이방해-단절 변화	.14	.21	.05	2.78*
영아 심리사회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초기	.05	.19	.01	4.48***
영아 심리사회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초기	-.05	-.15	.01	-4.03***
영아 심리사회 변화	→	유아 놀이상호작용 변화	.05	.22	.01	3.29***
영아 심리사회 변화	→	유아 놀이방해-단절 변화	-.13	-.50	.04	-2.78*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beta = -.29$)졌고, 영아의 심리사회 발달은 높아($\beta = .25$)졌으며,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은 높아($\beta = .12$)졌고,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낮아졌다($\beta = -.14$).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beta = -.19$)했고,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은 증가($\beta = .10$)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beta = -.12$)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아의 놀이상호작용도 증가($\beta = .13$)했고,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감소($\beta = -.14$)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은 낮아($\beta = -.20$)졌고,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행동도 낮아($\beta = -.27$)졌으며, 유아의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높아($\beta = .32$)졌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은 감소($\beta = -.22$)했고,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행동도 감소($\beta = -.14$)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빠르게 감소($\beta = .21$)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아의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증가($\beta = .21$)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beta = -.25$)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높아($\beta = .19$)졌고,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낮아($\beta = -.15$)졌다. 영아의 심리사회발달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은 증가($\beta = .22$)했고,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은 낮아($\beta = -.50$)졌다.

변인 간 경로 추정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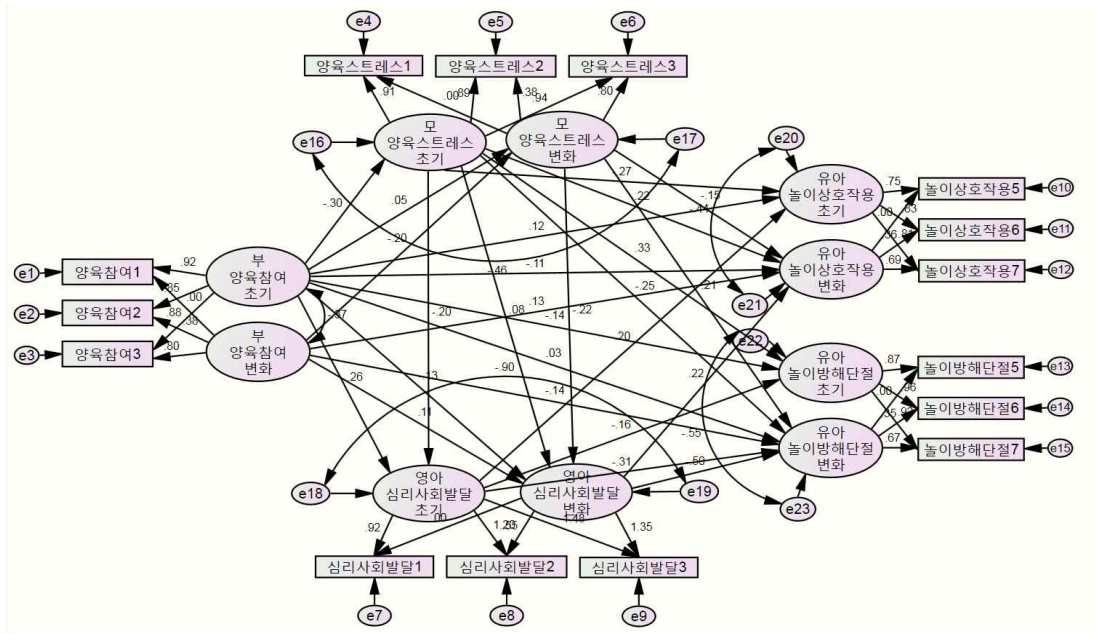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1의 변인 간 경로 추정결과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최종모형 1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Z 검증
부 양육참여 초기 →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초기	.07	4.76***
부 양육참여 초기 → 모 양육스트레스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초기	-.08	-5.71***
부 양육참여 초기 →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 → 유아 놀이상호작용 초기	.07	3.66***
부 양육참여 초기 →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 → 유아 놀이방해-단절 초기	-.08	-3.40***
부 양육참여 변화 → 모 양육스트레스 변화 → 유아 놀이방해 및 단절 변화	-.11	-2.37*
부 양육참여 변화 → 영아 심리사회발달 변화 → 유아 놀이상호작용 변화	.06	2.49*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놀이상호작용 간 초기치 값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어머니 양육스트레

스가 낮을수록 유아 놀이상호작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놀이 방해 및 단절 간 초기치 값에서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져 유아의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 심리사회발달, 유아 놀이상호작용 간 초기치 값에서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높고,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 심리사회발달, 유아 놀이 방해 및 단절 간 초기치 값에서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높아져 유아기 놀이방해 및 단절 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놀이 방해 및 단절행동 간 변화율 값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유아의 놀이방해 및 단절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기 심리사회발달,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간 변화율 값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영아기 심리사회발달은 증가하며, 영아기 심리사회발달이 증가할수록 유아기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 1차(0세), 2차(1세), 3차(2세), 5차(4세), 6차(5세), 7차(6세)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 변화율과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단절상호작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아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간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값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영아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영아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유아기 놀이상호작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석원 등(2014)은 횡단연구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직접효과보다 높은 매개효과를 보여 아버지 양육참여가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총효과를 높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변화율 값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중단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각이 유아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에서는 변화율 값이 유의미하게 나온 것과 함께 보았을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 값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미치는 영향력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또래관계 등의 친 사회화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amb와 Lewis(2010)의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이미현과 최혜순(2014)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의 긍정적 사회성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둘째,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기 또래 놀이방해 및 단절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유아의 놀이방해 및 단절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보았을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종단적 매개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종단적으로 매개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상호작용에서보다 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로부터 학습된 우울하고 비관적인 태도는 자녀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보고한 Boivin, Hymel, 그리고 Bukowski(1995)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비민주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 아동의 부정적 사회성을 높였으며,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 집단의 자녀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참여와 흥미, 협조, 순응 등과 같은 긍정적 사회성 점수가 다른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김영숙과 조은영(1996)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신은경과 정아현, 김소아(2014)도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유아 자녀일수록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쉽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주옥(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내적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매우 충동적이며,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따라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박정희, 장영애, 2004),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Thoits(2011)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의해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Thoits(2011)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스트레스 감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가까운 사람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지지를 베푸는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따라서 Thoits(2011)는 아버

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두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아기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단독 영향력보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가는 경로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와 Thoits(2011)의 이론을 지지한다.

셋째,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과 변화율은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증가하였으며,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문제 1번인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의 결과와 함께 보았을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유아기 긍정적 상호작용에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아의 심리사회발달 변화율은 유아기 긍정적 상호작용에 종단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전반적 발달이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김숙령 외, 2012; Baker, 2013; Levant, et al., 2014), 자녀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횡단적 선행연구(엄은나, 2007; 이영자 외, 2001; Brownell, 1986)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종단적 결과를 나타냈음에 의의를 가진다. 만 3세-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Downer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 발달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이 고루 높음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임을 보고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발달 간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백진주와 이양희(201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영아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영아 발달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아버지 변인인 자녀 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를 연구한 전홍주와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만이 영아 발달 하위요인에서 사회성과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이선남과 이경옥(2015)의 연구결과와 의사소통 영역의 발달 수준이 높은 영아는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낮은 영아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고, 사회적 기술 중에서도 주도성이 높아 또래들과의 놀이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 노승희(2009)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넷째,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은 영아 심리사회발달 초기값을 매개로 유아기 놀이 방해 및 단절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영아 심리사회발달은 높았으며, 영아 심리사회발달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방해 및 단절 상호작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한정현, 심미경, 2011; Duursma, Pan, & Raikes, 2008), 긍정적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수준과 갈등해결 전략,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져 놀이방해, 단절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횡단적 연구(김난실, 2004;

업은나, 2007; 하지영, 2011)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영아 심리사회발달의 종단적 매개효과의 결과 및 논의와 함께 본다면, 영아 심리사회발달 변화율이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는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유아의 부정적 상호작용에는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영아기 때 심리사회발달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서 방해 상호작용과 단절 상호작용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에 종단적 매개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만 영아기 심리사회발달이 종단적 매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아 심리사회발달은 부정적 상호작용에서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더 중요한 종단 매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종단적 관계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 놀이방해 및 단절 상호작용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영아 심리사회발달을 매개하여 미치는 영향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저조할 경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Oh, 2012)과 아버지 양육협조 수준이 낮을 때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신애선과 동료들(2015)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뒷받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사회, 정서 발달과 학교 적응 등의 긍정적 발달에 선행하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유아기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영아 심리사회발달을 매개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심리사회발달, 또래상호작용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간경과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변인들 간의 시간에 따른 실증적 관계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횡단적 연구가 가지는 통계분석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 관계 및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기에 선행하는 영아기의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환경변인 혹은 유아기 개인변인을 각각 살펴본 연구나 영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 환경 변인과 영아기 개인변인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나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기에 선행하는 영아기의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영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영아에게 중요한 요인들을 찾았으며, 그로 인해 유아기 부정적 상호작용을 예방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전체적인 평균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개인 내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인 계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변수 중심으로 접근 한 본 논문에서는 개인에 따라

이질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문제 및 특성에 관해 유사한 반응패턴을 보이는 개인을 집단으로 묶어서 설계하는 대상중심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주제의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 변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아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종단연구는 더욱 부족한 까닭에 다른 영아기 종단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였다. 추후 영아기의 다른 표본이나 변인을 사용한 연구들을 통해 영아기 발달단계의 중요성을 탐색하는 많은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능력-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 189-201.
- 곽금주(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 김난실(2004). 만 2 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소(2016).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에 미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및 유아 성별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이윤이(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순구(2002). 양육행동 개념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8(4).
- 김순진(2013). 어머니 변인이 자녀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조은영(1996).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아동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인간발달연구, 3, 15-24.
- 김유미(2009).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서울: 해나무.
-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주, 박형신(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3), 29-48.
- 김재화(2016). 4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문제 행동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승희(2009). 언어발달 수준에 따른 만 2세 반 두 영아의 놀이특성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량화, 전일우(2010). 반일제와 종일제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자기조절력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3), 51-69.
- 문무경(2005).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서울: 창지사.
- 박연주(2001). 피학대 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 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정희, 장영애(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8, 327-353.
- 백진주, 이양희(2014).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따른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의 차이. *자폐성장애연구*, 14(3), 35-51.
- 서석원, 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서은미(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 173-191.
- 신애선(2017). 영아교사의 애착 및 영아의 몸짓과 영아 언어발달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7(4), 121-143.
- 신은경, 정아현, 김소아(2014).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 149-169.
- 양승희(2016).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 행동평가를 위한 부모의 반응성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6(4), 129-147.
- 양윤정(2016). 유아의 자율성이 또래놀이행동과 학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은나(2007).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241-261.
- 오수진(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윤(2016). 빈곤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서비스 질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정(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현, 최혜순(2014).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307-330.
- 이선남, 이경옥(2015). 포스터 발표: 유아의 초기발달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 536-536.
- 이영자, 유효순, 이정옥(2001).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유아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이은경(2014). 3, 5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길(1992). 취학전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2009).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육아지원연구, 4(1), 115-131.
- 임명희, 박윤조(2011).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정서발달과 영아특성변인, 어머니특성변인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4), 57-82.
- 장선아(2014). 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는다. 61, 유보통합 제 1차 정책 토론회.
- 전현정, 정혜원(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5), 2678-2688.
-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중단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4), 179-199.
- 정송희, 전효정(2016).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213.
- 주정혜(2012).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숙인(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정재은(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5(5), 335-358.
- 최미숙, 송순옥(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혜영,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하지영(2011).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정현, 심미경(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1(1), 19-31.

허계형, 이소영, Squires, J., 이준석(2006). K-ASQ 사용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허혜경, 김민정(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95-110.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선실, 황희숙(2014).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인지발달장애학회지*, 5, 71-93.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Baker, C. E.(2013). Fathers' and mothers' home literacy involvement and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amily literacy program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7(4), 184-197.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Bronte-Tinkew, J., Carrano, J., Horowitz, A., & Kinukawa, A.(2008). Involvement among resident fathers and links to infant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9), 1211-1244.

Brownell, C. A.(1986). Convergent developments: Cognitive-developmental correlates of growth in Infant/toddler peer skills. *Child Development*, 57(2), 275-286.

Brownell, C. A., & Kopp, C. B.(2007). Transitions in toddler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1-40.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

Coplan, R. J., & Arbeau, K. A.(2009). Peer Interactions and play in early childhood. In K. J.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groups*(pp. 143-161). New York: Guilford Press.

Downer, J., Campos, R., McWayne, C., & Gartner, T.(2008).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early learning: A critical review of published empirical work from the past 15 years. *Marriage & Family*

Review, 43(1-2), 67-108.

- Duncan, G. J., & Magnuson, K.(2004). Individual and parent-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human capital and positive behavior. *Human development across lives and generations: The potential for change*, 93-135.
- Duursma, E., Pan, B. A., & Raikes, H.(2008). Predictors and outcomes of low-income fathers' reading with their todd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3), 351-365.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M. P., & Sutton-Smith, B.(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411-431.
- Fantuzzo, J., LeBoeuf, W., Rouse, H., & Chen, C. C.(2012). Academic achievement of African American boys: A city-wide, community-based investigation of risk and resili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0(5), 559-579.
- Hooper, S. R., & Umansky, W.(2004).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Merrill Prentice Hall.
- Howes, C., & Leslie, P.(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98, 340-349.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Janssen, A. J., Akkermans, R. P., Steiner, K., de Haes, O. A., Oostendorp, R. A., Kollée, L. A., & Nijhuis-van der Sanden, M. W.(2011). Unstable longitudinal motor performance in preterm infants from 6 to 24 months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2nd ed.)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5), 1902-1909.
- Kline, R.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mb, M. E., & Lewis, C.(2010).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two-parent familie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94.
- Levant, R. F., Richmond, K., Cruickshank, B., Rankin, T. J., & Rummell, C. M.(2014). Exploring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y care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2(3), 193-204.
- Lipkens, R., Hayes, S. C., & Hayes, L. J.(1993).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derived relations in an infa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6(2), 201-239.
- Marshall, P. J., Reeb, B. C., Fox, N. A., Nelson, C. A., & Zeanah, C. H.(2008).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 on EEG power and coherence in previously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Romania.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3), 861-880.
- Mathieson, K., & Banerjee, R.(2010). Pre-school peer play: The beginnings of social competence.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1), 9.
- Meaney, M. J.(2010). Epigenetics and the biological definition of gene x environment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81(1), 41-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Childcar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24 and 36 months: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2(5), 1478-1500.
- OECD.(2001). *Starting strong 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Oh, J. I.(2012). Relation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development of child's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 Qi, C. H., & Kaiser, A. P.(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 Rinaldi, C. M., & Howe, N.(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ggman, L. A., Boyce, L. K., Cook, G. A., Christiansen, K., & Jones, D.(2004). Playing with daddy: Social toy play, early head start, and developmental outcomes. *Fathering*, 2(1), 83.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ameroff, A.(2010). A unified theory of development: A dialectic integration of nature and nurture. *Child Development*, 81(1), 6-22.
- Thoits, Peggy A.(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 145-161.
- Zeanah, C. H., Boris, N. W., & Larrieu, J. A.(1997). Infant development and developmental risk: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2), 165-178.

Abstrac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Paternal Involve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Psychosocial Development of Infant during Infancy and Peer Interactions during Childhood

Jang, Hyo Eu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im, Choon Kyun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of infant on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 during infancy to children's peer interactions. For these objective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and adapted to the data take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ave I (0-year olds) to Wave III (2-year olds) and Wave V(4-year olds) to Wave VII(6-year olds). During a total of six years, 1,018 parent respond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ternal parenting stress(initial statu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initial status) to children's play interaction(initial status). Second, maternal parenting stress(initial status/change rate) had a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s(initial status/change rate) to children's play disruption-disconnection interactions(initial status/change rate). Third, psychosocial development of infants(initial status/change rate) had a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initial status/change rate) to children's play interactions(initial status/change rate). Fourth, psychosocial development of infant(initial statu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initial status) to children's play disruption-disconnection interactions(initial statu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